

디자인 수다 06

미니멀리즘과 미니멀 디자인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새로움의 시작 _ 낯선 경험

살다 보면 문득 어떤 것들이 낯설어질 때가 있다. 평소에는 익숙한 물건인데, 어떤 상황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생경한 풍경이 펼쳐진다. 흰 대리석 분수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샛노란 운동화 한 짝이나 녹음이 짙은 숲속에 버려진 빨간 소파, 또는 한적한 어느 날 오후, 푸른 하늘 위로 갑자기 날아오르는 검정 비닐봉지 같은 것들. 이것들은 하나 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맥락에서 발견된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체험은 새로운 감각을 환기하고 순간적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그때 그 사물은 내가 알고 있던 사물이 아닌 것만 같다.

미니멀 디자인의 시작

사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려고 했던 일군의 예술가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렀다. 그들

의 철학은 시대가 지나면서 단순한 형태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남았다.

2007년 샌프란시스코 맥 월드 컨벤션에서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아이폰을 꺼냈을 때, 전 세계는 그 작은 물건에 열광했다. 손가락의 가벼운 움직임에 따라 마법을 부리듯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서비스가 펼쳐졌다. 정압식이 아니라 정전식의 터치는 그야말로 새로운 손맛이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통해 전에 없던 감성을 개화했다. 빼면 뺄수록 좋은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미학이 대중을 사로잡았다. 애플은 원숙한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단순한 디자인에 담아

"디터 램스는 애플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자 나의 롤모델이다."



PC 3 SV vinyl player, 1956,
designed by Dieter Rams_www.designwanted.com



T3 pocket radio, 1958,
designed by Dieter Rams_www.designwanted.com



L45 Speakers, TS45,
TG60 wall mount sound_designed by Dieter Rams_www.
designwanted.com

냈다. 사람들은 이를 ‘혁신’이라 불렀다. 애플 제품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잡스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디자이너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바로 오랫동안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해온 조너선 아이브(Jonathan Ive)였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영감을 준 또 다른 디자이너를 언급하곤 했다.

디터 램스 _ 미니멀 디자인을 선도하다

디터 램스는 1955년부터 1995년까지 브라운(Braun)사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끌어온 독일의 디자이너이다. 그는 제품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들어설 공간까지도 같이 고려했다.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품의 정면과 뒷면 그리고 옆면의 디자인에도 공을 기울였다. 실제로 그의 제품은 지금 봐도 세련될 뿐만 아니라 ‘아, 애플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서 왔구나.’ 하고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디터 램스의 디자인 철학은 ‘Less, But Better(최소한, 그러나 더 나은)’였다. 그의 모토는 모더니즘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Less is More’의 변주였지만 디터 램스로 인해 비로소 미니멀 디자인은 본격화된다. 디터 램스가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60년대부터 예술계에서는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미니멀리즘 _ 단순하지 않은 기획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을 설명할 때 ‘군더더기 없는’, ‘단순한’, 심지어 ‘모던한’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는 아마 미니멀 디자인과 미니멀리즘을 혼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미니멀리즘은 예술 운동으로 출발했고, 미니멀 디자인과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미니멀리즘을 조금 들여다보면 위에서 설명하는 표현들이 미니멀리즘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6년, 리처드 볼하임(Richard Wolheim)은 기하학적 추상이 강조되며 장식적이지 않고 단순한 형태의 작품들을 ‘미니멀 아트’라고 불렀다. 하지만 리처드 볼하임의 정의는 미니멀리즘을 기능적으로만 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면, 미니멀리스트는 왜 단순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을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미니멀리즘 이전에 예술계를 휩쓸었던 모더니즘과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모더니즘

심플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모던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 사조에서 모더니즘의 의미는 일상 언어의 ‘느낌적 느낌’과는 다르다. 모더니즘(Modernism)은 ‘근대성(modernity)’과 관련된 예술 전반에 관련된 용어이지만, 예술사에서 모더니즘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 예술 운동은 찾기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던’이라는 애매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modern’의 라틴어 어근인 모도(modus)는 ‘저스트 나우(just now)’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당대의 현상, 태도, 사상 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표현할 때 모더니즘을 거론하지 않는다. 모더니즘은 바로 산업의 발전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특정 시기와 맞닿아 있다. 이 시기를 맞아 이전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 전반, 문화, 인식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19세기 말에서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일어난 다양한 예술적 혁신과 경향이라고 비교적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너무 다양하다. 러프하게 키워드만 뽑아 봐도 한둘이 아니다. 현대성,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전통의 전복(아방가르드), 주관성과 자율성 등. 이런 키워드는 건축과 회화, 디자인, 문학과 음악에서 각각 강조점이 달라진다. 건축과 디자인은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현대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고, 문학에서는 주관성과 자율성이, 그리고 음악과 회화에서는 아방가르드가 더 부각된다는 식이다. 물론 이것도 기계적 구분일 뿐이다. 이 키워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모더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지럽게 느껴지고 헤매게 된다. 그런데도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은 있었는데 바로 전통의 이탈이었다.



모더니즘 예술_The Intrigue, 1890, painted by James Ensor_www.theguardian.com

모더니즘 예술_The Tree A, 1913, painted by Piet Mondrian_www.tate.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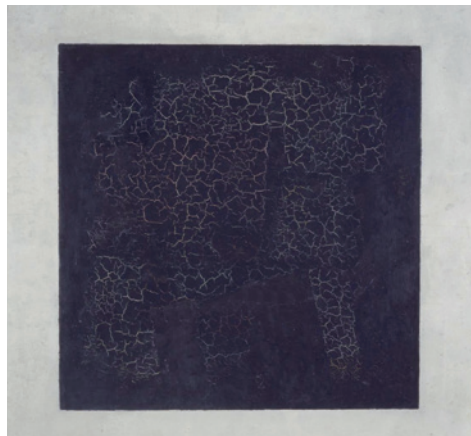


모더니즘 예술_The Pianist, 1914, painted by Lyubov Popova_www.paintingz.com



미니멀리즘 _ 사물을 발견하다

이제 다시 미니멀리즘으로 돌아가 보자.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부터 개화되지만, 그 효시는 러시아의 화가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검은 사각형'(1913)이나 뒤샹(Marcel Duchamp)의 '샘'(1917)에서 찾는다. 얼핏 이들의 예술은 서로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전략적 목표는 비슷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예술이 추구하던 환상성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화폭에 전원 풍경을 그리면, 대중은 전원 풍경이라 는 그림 속 환상 속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인간 군상의 조각을 보면, 그 구성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했다. 하지만 말레비치는 검고 단순한 사각형을 통해, 인식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고(이게 도대체 무슨 형상이지?), 뒤샹은 변기를 다른 맥락 속에 두면서(이게 예술인가?) 예술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흔들었다.



Black Square, 1913, painted by Kazimir Malevich_www.tate.org.uk



Fountain, 1917, painted by Marcel Duchamp_www.wikimedia.org

60년대 미니멀리즘 작가들도 구도나 조형 등의 일루전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 단순하고 세련된 외피 아래 나뭇의 정교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랬다. 내 머릿속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선입견을 제거하고 대상을 바라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체험은 어떤 새로운 감각과 인식을 불러일으킬까?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그 방법의 하나는 특별한 형태와 서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시킨다. 더 나아가 대상 자체가 조형적 위상을 가지지 못하게 반복적인 패턴을 이용했다. 또한, 대중과 작품이라는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대중과 오브제, 그리고 이들의 관계성을 동시에 모색했다. 그래서 감상자가 작품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작품에 몰입하는 체험을 기획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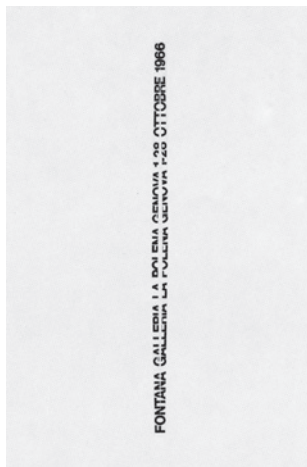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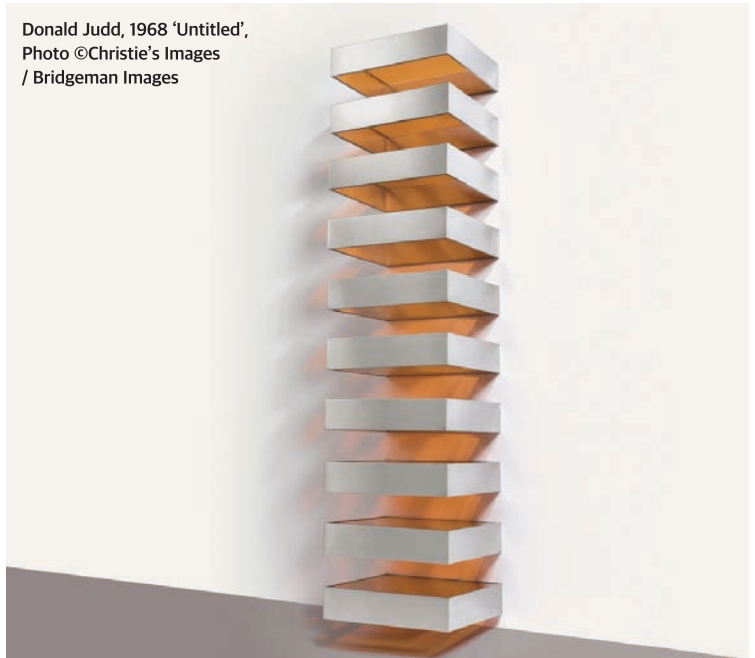
자기표현은 곧 예술이라는 추상표현주의를 거부하고 본질적 감각을 발견하기 위해 그들은 작가의 주관성 대신 사물에 집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니멀리즘이 사물의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기존의 예술 관념을 깨뜨리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였다.

미니멀리즘과 미니멀 디자인

물론, 미니멀 디자인이 미니멀리즘의 모든 정신을 이어받지는 않았다. 미니멀리즘 예술가가 도달하려 했던 창대한 기획은 현재의 미니멀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다. 원래의 기획은 선입견을 제거한 채, 순수한 인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체험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이런 철학적 의도는 어쩌면 디자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 애초에 미니멀리즘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망의 크기 때문이었을까? 미니멀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으로부터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형태와 편리한

Donald Judd, 1968 'Untitled',
Photo ©Christie's Images
/ Bridgeman Images



Fontana, Poster, 1966, designed by
AG Fronzoni_www.designculture.it



Serie70, Armchair, 1970,
designed by AG Fronzoni
www.designculture.it



Moreschi, Logo, 1963,
designed by AG Fronzoni
www.designculture.it

사용자 경험이라는 요소를 수용했고 그 전략은 자본주의와 맞아떨어졌다. 애플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니멀 디자인은 트렌드가 되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는 현시대의 변화를 예견한 셈이다. 물론 디자인 트렌드는 변하기 마련이고, 언젠가 사람들은 또 다른 디자인 감성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